

제 목	국 문	수산물 채취 잠수부의 특성과 잠수관련질환의 양상		
	영 문	Working environment and diving related disease of diving fisherma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사공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Joon Sakong Dep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분 야	환경	발 표 자	사공 준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전국 연안에서는 국내수요와 외화획득을 위하여 많은 잠수부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잠수작업을 생계수단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이들의 직업적 위험에 관한 관심은 국가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다른 위험군에 비해 대단히 적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직업군 보다도 사고나 질병의 발생, 그로 인한 후유증 및 사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잠수부들에 대한 정책적, 의학적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잠수부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잠수작업의 환경을 조사하고 평소 경험하게 되는 잠수관련질환의 이환양상과 의료이용양상을 규명하여 잠수관련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기초단계로 시행되었다.

2. 연구방법

전국 연안에 산재하는 잠수부 433명(서해안 254명, 남해안 150명, 동해안 29명)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 및 취업형태 등의 인구학적 변수, 잠수기술의 습득경로, 잠수경력, 잠수작업방식, 잠수횟수, 잠수작업시간 등의 작업 환경에 관련된 변수, 잠수사고의 경험의 빈도와 잠수관련질환에 이환시 경험한 증상과 대처방식에 관한 내용을 면접과 우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잠수사들의 평균연령은 39.7세(24-58세), 남자가 92%, 학력수준은 고졸 58%, 중졸 31%였다. 잠수작업의 경력은 평균 13.3년이며 37%가 군대에서, 45%가 선배잠수사로부터 잠수기술을 배웠으며 12%만이 잠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경험이 있었다.

작업수심은 40%가 20-30m, 33%가 30-40m 였으며 4-6월 사이에 가장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잠수방식은 70%가 후카식, 22%가 투구식을 사용하였으며 하루작업에서 잠수부의 45%가 5-6회, 35%가 3-4회의 반복잠수를 하고 있었고 한 회의 잠수시간은 평균 50분이었다.

65%에서 한해에 1번 이상 다소 심각한 감압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었고 잠수부로 활동중 재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31%였다. 잠수부가 경험하는 잠수관련질환으로는 팔다리가 아프고 저리다(81%), 팔다리가 힘이 없다(72%), 피부가 가렵다(71%), 팔다리 감각이 이상하다(67%)가 가장 흔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4. 고찰

우리 나라 국민중 누군가는 해산물 채취를 위한 잠수작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잠수부들이 직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를 공급해주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수부들의 잠수관련질환의 유병양상과 발생양상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잠수부의 65%에서 한해에 1번 이상 다소 심각한 감압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었고 45%가 하루 5-6회의 반복잠수를 하고 있는 현실은 잠수부들이 직업성 질환 및 재해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이들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의학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